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의 철저한 구현

손영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6페이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그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선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과학기술혁명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우선 과학기술혁명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과학기술혁명을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장하기 위한 쓸모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관점과 립장에 서야 현실적이며 쓸모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고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기 인민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또한 모든 문제를 언제나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연구사업은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고 그에 필요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서 높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과학연구사업은 창조성을 자기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확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서게 된다.

새것을 연구하는 과정을 떠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객관세계의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려는 관점과 립장만이 과학자의 옳바른 자세로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고 리용하는 창조적활동과정인것으로 하여 높은 혁명성과 적극성을 요구하게 된다. 꾸준한 노력과 정열, 높은 혁명성이 안

받침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의 창조성은 새로운 법칙의 발견리용과 함께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고 그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나라마다 자연지리적조건이 다르고 같은 자연법칙이라도 자연조건과 환경이 다르면 그 표현형태와 작용방식이 달라지는것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해도 더운 지방의 식물을 찬 지방에서 그대로 써먹을수 없다. 사람들은 창조적인 연구활동으로 더운 지방의 동식물종이라고 하더라도 찬 지방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자기 나라에 쓸모있는것으로 만들어나갈수 있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떠나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패를 면할수 없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과학기술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되고 리용되기때문이다.

물론 과학기술은 인류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창조되고 인류공동의 재부로 된다. 그러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과학기술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되고 리용되게 된다. 이것은 과학기술발전이 민족적특성을 띠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발전이 민족적특성을 띠게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와 민족에 따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이 서로 다르고 또 그 수준과 내용에서도 서로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선 매개 나라와 민족이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과학기술의 유산이 서로 다르다.

과학기술은 자기 발전의 선행단계에서 이룩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과학기술유산에서의 차이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과학기술발전의 구체적목표와 단계, 방도들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또한 매개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사회발전의 목표와 방향, 구체적단계들도 서로 같지 않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세계는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각이한 나라와 민족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기되는 과업도 서로 다르고 자연지리적조건도 서로 다르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각이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만큼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의 근본방향과 목표를 옳게 설정할수있으며 또 이 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공만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부강번영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전공부문의 지식을 습

득하기 전에 먼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 나라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나라의 현실을 잘 알아야 자기 나라와 민족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창조할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고귀한 과학기술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과학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국가경제력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더욱 굳건히 올려세우고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새 세기 산업혁명은 철저히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경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안정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면 자체의것, 자기 나라의 원료, 연료, 설비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그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길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체의 힘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전망성있게 마련해나가는 가장 옳은 길로 된다.

원료, 연료, 설비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로 되고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 연료를 국내의 자원으로 보장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립하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보장한다는것을 말한다.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수입원료와 자재를 우리의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양어장, 축산기지들이 수많은 일떠섰다. 이러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자기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자면 원료와 연료의 주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꾸려졌다고 하여도 원료와 연료를 다른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자기의것으로 될수 없으며 명줄을 다른 나라에 걸고있는것과 같다. 명줄을 다른 나라에 걸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단위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입원료와 자재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주체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에네르기, 동력문제의 주체

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동력과 에너지는 현대산업의 열원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문화생활거점들이 꾸려져있다고 하여도 동력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현시기 전력문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전력설비와 기술에 대한 제재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전력과 에너지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에너지,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는 자체의 에너지자원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의 에너지,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 기본은 수력자원의 개발리용이다. 수력자원의 개발리용과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로 새 에너지자원개발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그 원천이 풍부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을 널리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설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설비들을 사들여다가 차려놓고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것이 아니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경제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런 식으로는 언제 가도 기술적자립을 이룩할수 없다.

국내의 원료, 연료와 함께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 첨단설비에 철저히 의거하는 경제만이 가장 안전하고 생활력있는 경제로서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자원위구나 경제파동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으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할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죽음과 같다.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조성이 마비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게 인식할수 없으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의 옳바른 방도를 찾아낼수 없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언제 가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기술혁명을 진행해나갈수 없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정신력과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발전된 나라들을 능히 압도할수 있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주체적립장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결코 주체적립장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연구도입하여 우리의것으로 만들면 그것도 주체적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된다. 원래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선진과학기술이 어느 나라에서 연구개발되었든 그것은 다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통하여 널리 보급되고 더욱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것이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일반적법칙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어떤 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진과학기술이라면 어느 나라의것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수준에로 올라서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사대와 교조, 모방을 배격하고 우리 식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약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실마리어 산업혁명, 주체성